

## 2014년 이후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파견사업 선발계획 추가사항 안내

가.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위주의 준비과정을 막기 위해 2015년 이후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선발제도를 변경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. 이는 필기시험 위주로 선발하는 현행제도로 인해 학원공부가 주가 되고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내신성적을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.

나. 이를 위해 응시자격을 '내신성적이 3.00등급 이내인 자'로 제한한 바, 이는 국가 장학금으로 해외에서 공부할 국비유학생은 적어도 내신 3등급(23%)의 학교성적은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.

- 하지만 이를 충족치 못하더라도 응시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건의가 꾸준히 있었고 이를 감안하여 내신성적이 3.00등급이 되지 않는 자가 응시하고자 할 경우, 학생을 직접 지도한 2명 이상의 선생님(담임 또는 교과담임 등)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- 이 경우 내신성적 실질반영률이 30%라는 점을 감안하여, 낮은 내신등급을 받은 자는 합격이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하여 추천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또한, 고졸 검정고시 출신의 응시자격을 검정고시 합격 후, 6개월이 경과한 후로 제한한 바, 이는 내신이 불리한 학생이 본 시험을 위해 학교를 중단(자퇴)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함으로,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

- 다만, 2015년도 선발의 경우 제도변경의 과도기적 시기임을 감안하여 본 응시자격 요건은 2016년 선발부터 적용코자 합니다.

- 아울러 본 시험 준비를 위해 학교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. 검정고시를 통해 본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선발 시 검증과정을 거쳐, 본 시험 준비를 위해 학교를 중단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.

라. 국립국제교육원은 일본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교육에 충실한 자가 최종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점을 학생 지도와 상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